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한인가정상담소 16일

‘...가정사역 세미나’ 개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피터 장)에서는 오는 16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종교지도자와 가정사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 마디로 종교지도자들을 위한 가정상담 교육, 교인들이 여러 가지 가정문제를 의논해 왔을 때 목회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한인가정상담소의 피터 장 소장은 “지난 5월 가정폭력 가해자 통계조사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70%가 기독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고민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청하게 되는 분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구요. 때문에 가정문제에 있어서 목회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



한인가정상담소의 피터 장 소장(좌)과 신혜원 가정법 변호사(우)가 16일 열리는 ‘종교지도자와 가정사역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합니다”며 세미나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하는 신혜원 가정법 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보아왔다고 말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퍼스트 콘택트(최초 접촉자)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큰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목회자들 중에는 법적인 대응을 종교관에 반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심지어 변호사는 이혼을 권

하는 사람이니 만나지 말라는 경우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털어냈다.

신혜원 변호사 외에 장수경 심리학 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이번 한인가정상담소의 ‘종교지도자와 가정사역 세미나’는 오는 16일 레디슨 윌셔 플라자 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까지 열리며 아침과 점심 식사도 제공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5일 오후 1시까지 한인가정상담소에 예약하면 된다. 문의는 213-389-6755. 하혜엄기자